

구약성경의 ‘탄닌(תַּנִּין)’ 이미지와 한·중 번역 연구

김은정*

1. 서론

오래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에 관한 연구는 신화, 역사,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동양과 서양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상징적 이미지와 그들의 문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용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는 고대 이집트, 바빌로니아, 수메르, 중국, 인도 등 문명의 발상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¹⁾ 각 문명의 발상지에서 남긴 역사적인 유물과 신화가 담긴 문헌 등을 통해 용이 어떤 이미지로 발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신구약 원전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쓰인 탄닌(תַּנִּין)과 헬라어로 쓰인 드라콘(δράκων)으로 나눌 수 있다. 용은 영어로 dragon이며, 그 어원은 헬라어인 드라콘이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드라콘은 델코마이(δέρκομαι)에서 유래했으며, ‘뱀’, 특히 ‘용’, ‘바다 괴물’을 의미한다. 또 드라콘은 구약 원전에서 히브리어 단어인 탄닌의 역어로 사용됐다. 탄닌은 ‘뱀’, ‘용’, ‘바다 괴물’, ‘고래’ 등 8가지의 뜻을 의미한다.²⁾

본고에서는 용에 대한 이미지를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에 두고 그 이미지의 기원을 고대 근동 신화인 바벨론 창조신화에서 나타난 티아맛과 우가릿 창조신화에서 나타난 로탄으로 제한하여 밝힌다. 그 뒤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난 용 이미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한·중의 용 이미지가 히브리어 탄닌의 성경 번역에 있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탄닌이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 각각 어떤 어휘를 사용하여 번역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성경 역본의 대조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탄닌 번역에 있어서

* 中國 山東大學校,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박사. peng-i1004@hanmail.net.

- 1) 김정환, “한국·루마니아 구비문학에 나타난 용·뱀의 양상”, 『세계문화비교연구』 18 (2007), 203.
- 2) 바이블렉스 7.0, 원어성경 원어사전 S/W. 원전 분해 및 기타 역본 비교, 또 스트롱 코드를 이용하여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전 검색을 할 수 있게 만든 프로그램이다. 히브리어 탄닌의 스트롱 코드는 8577이다.

보다 자세한 대조 연구를 위해 본고에서는 원전인 히브리어 성경과 더불어 성경 역본인 영어 성경,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등 총 네 가지 언어의 성경을 대조하였다.

원전 성경으로는 히브리어는 BHS³⁾, 영어 성경은 KJV⁴⁾, 한국어 성경은 『성경전서 개역한글판』(『개역』),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개역개정』), 『성경전서 표준새번역』(『표준』), 『공동번역성서』(『공동』)이며, 중국어 성경은 『文理 舊新約聖書』(『대표본』)⁵⁾, 『舊新約全書』(『브리지만-퀵벗슨역』)⁶⁾, 『舊新約聖經』(『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⁷⁾, 『和合本』(『화합본』)이다⁸⁾.

2.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이미지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고대 근동 신화인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에서 나타나는 티아맛과 우가릿 창조신화 『바알』에서 나타난 로탄의 특징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들에 대한 이미지는 고대근동 신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과 구약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3)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40년 만에 수정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내놓은 것이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엔시아” (1967/77)이다. 본문으로서는 레닌그라드 코덱스의 마소라 본문(1008년의 MS B19a)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BHK의 오기를 많이 수정해 주었고, 마소라 주기 표기에 있어서도 BHK보다 더 상세하다.

대한성서공회, http://www.bskorea.or.kr/about/bibcome/bibcome_set02.aspx (2016. 1. 29).

4) 이환진, “<서평>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성경원문연구』 29 (2011), 195. King James Version (*The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Robert Carroll and Stephen Prickett,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org. ed. 1611].)이 중국과 한국 성경에 미친 영향은 크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중국 성경으로는 대표적으로 『브리지만-퀵벗슨역』(1864)이 있으며, 이 성경은 이후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1902)과 『화합본』(1919)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 한국 성경으로는 『예수성교전서』(1887), 구역(1911), 개역(1938)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5) 『文理 舊新約聖書(Wenli Bible, Delegates' Version)』(上海: 聖書公會, 1933; 원출판년 1854).

6) 『舊新約全書(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Classical Bible)』(上海: 大美國聖經會, 1864).

7) 『舊新約聖經(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Easy Wenli, Term Shangti)』(上海: 美國聖經會, 1902).

8) 『聖經 和合本』(香港: 중국기독교협회, 2007).

먼저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부터 살펴보면 주요 내용으로 태초, 신들의 탄생, 신들 사이의 갈등, 마르둑의 탄생, 마르둑과 티아맛의 싸움 등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기존의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창조기사와 문학적, 사상적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⁹⁾

『에누마 엘리쉬』에서 주목하여 볼 점은 바로 티아맛의 정체이다. 티아맛이 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와 바벨론의 원통형 도장(cylinder seals)과 벽화에서 볼 수 있다.

티아맛이란 이름은 아카드어에서 ti'amtu, Ti-'amat, tamtu, tamdu 등으로 표기되며, 그 뜻은 “바다, 해양”을 의미하여 결국 티아맛은 바다를 의인화한 이름이라 볼 수 있다. 바벨론의 세계관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단물인 압수와 짠물인 티아맛에 의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¹⁰⁾

『에누마 엘리쉬』 IV, 93-104에서 마르둑과 티아맛의 싸움 부분을 통해 티아맛의 정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데, 그 특징은 얼굴과 입, 입술, 배, 내장, 심장을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¹¹⁾

93 그리고 티아맛과 신들 중 가장 지혜로운 마르둑은 싸움을 시작하였다.

94 그들은 단판의 싸움을 하려고 가까이 나아갔다.

95 주는 그의 그물을 펼치고 그녀를 그것으로 에워싸려고 하였다.

96 그는 후방에 있던 강풍을 그녀의 얼굴을 향해 몰아쳤다.

97 티아맛이 그를 삼키려고 그녀의 입을 열었을 때

98 그가 강풍을 그 안에 불어넣자 그녀는 그 입술을 닫을 수가 없었다.

99 맹렬한 바람이 그녀의 배를 부풀게 하자

100 그녀의 속이 부풀어 오르고 그녀의 입은 넓게 열렸다.

101 그는 활을 쏘았고 그것은 그녀의 배를 찢었다.

102 그것은 그녀의 내장을 관통하였고, 그녀의 심장을 쪼개었다.

103 그는 그녀를 정복하였고 그녀의 목숨을 끊었다.

104 그는 그녀의 시체를 땅에 던지고 그녀 위에 섰다.

티아맛이 바다를 의인화한 이름 외에 바다의 괴물 이미지 또한 나타내는 데, 마르둑은 바다의 용(sea-monster)을 잡기 위해 그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9) 민영진,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의 번역과 주해”, 『신학과 세계』 7 (1981), 274.

10) 김정우,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리위야단의 영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4), 31-32, 36.

11) Ibid., 36.

알았고(IV, 40), 그 뒤 마르둑은 그물을 던져서 티아맛을 에워쌌으며, 티아맛은 그물에 걸린 바다 짐승으로 나타난다(IV, 95). 또한 티아맛은 입을 벌리고 무엇인가를 삼키려는 바다 괴물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IV, 97).¹²⁾

바벨론의 원통형 도장(cylinder seals)과 벽화를 보면 티아맛의 이미지는 용이거나 그와 유사한 짐승으로 나타나는데, 말라티(Malaty)에서 발견된 양각에서는 거대한 뱀의 모양을 가진 용과의 싸움이 나타나 있고, 바벨론의 한 옥쇄(a royal seal)에는 머리에 일곱 뿔을 가진 혼돈의 용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¹³⁾

그 다음으로 우가릿 창조신화 『바알』을 살펴보면 『에누마 엘리쉬』와 공통적으로 ‘신들의 전쟁’ 모티프를 보존하고 있으며, 모두 여섯 토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알은 『에누마 엘리쉬』의 마르둑과 마찬가지로 바람신이며, 얌(Yam)은 티아맛과 마찬가지로 바다신이다.¹⁴⁾

우가릿 창조신화 『바알』에서 나타난 로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폭풍의 신 바알과 죽음의 신 모트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CTA 5 [67]: I :1-6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¹⁵⁾

- 1 너가 날랜 뱀 로탄을 쳤으며
- 2 꼬부라진 뱀을 멸하였으므로
- 3 일곱 머리의 폭군을...
- 4 하늘은 불타고 시들어질 것이다.
- 5 내가 너를 산산조각 낼 때에
- 6 그리고 나는 (너의 넓적다리와, 피와)··· 팔뚝을 먹으리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자는 죽음의 신 모트로서, 바알이 로탄을 죽인 사건(1-3절)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로탄은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일곱 머리를 가진 폭군이란 세 가지의 주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⁶⁾

로탄과 용의 관계는 아낏트 토판 3 (‘nt:III:33-39)과 PRU II :3:3-11, CTA 2:2: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낏트 토판 3의 본문 37-39절을 보면 용, 꾸불꾸불한 뱀, 일곱 머리의 폭군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존재

12) Ibid., 37.

13) Ibid., 37-38.

14)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79; 이환진,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전쟁: 에누마 엘리쉬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7 (2003), 33.

15) 김정우,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리워야단의 영상』, 39-40.

16) Ibid., 40, 46-47.

로 보고 있다.¹⁷⁾ 또한 PRU II :3:3-11에서는 용은 얄의 또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¹⁸⁾ CTA 2:2:24에서는 바알이 몽둥이로 얄을 쳐부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본문에서 얄은 죽은 바다의 용으로 묘사되고 있다.¹⁹⁾ 이러한 본문을 종합하여 보면 얄은 우가릿 창조신화에서 바다의 화신(personification)으로서 로탄, 용(Tannin), 매끄러운 뱀, 꼬불꼬불한 뱀, 일곱 머리의 폭군으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결론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창조신화 『에누마 엘리쉬』와 우가릿 창조신화 『바알』에서 나타난 마르둑과 티아맛의 전쟁, 바알과 얄의 전쟁에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티아맛과 로탄의 상징적인 이미지와 용과의 관계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구약성경에서 용이 나오는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화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 이는 셈족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또는 괴물)이 암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욥기 7:12이다. 둘째, 신화적인 바다의 용을 역사화시켜 느부갓네살, 바로와 같은 폭군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51:34-35와 에스겔 29:3-4이다. 셋째, 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시편 91:13, 출애굽기 7:9, 10, 12, 신명기 32:33 등이다. 넷째, 셈족의 바다 짐승을 비신화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걸작으로 소개한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는 창세기 1:21이 있다.²¹⁾

17) 아낏트 토판 3본문:

- 37 나는 용을 재갈 먹었고, 정녕 그를 재갈 먹었으며
- 38 나는 꾸불꾸불한 뱀을 쳐부수었고
- 39 일곱 머리의 폭군을 (죽였다).

18) PRU II :3:3-11 본문 :

- 마하나임(?) 땅에서 그 (용)는 바다를 휘저었다
- 그의 두 혀는 하늘을 활았다
- 그의 두 꼬리는 바다를 휘저었다
- 그녀는 재갈물리지 않은 용을 붙들었다
- 그녀는 그를 레바논의 꼭대기에 묶었다.

19) CTA 2:2:24 본문:

- 바다는 무너졌고, 땅에 내려 앉았다
- 그의 관절이 떨렸고, 그의 골격이 무너졌다.
- 바알은 바다를 부수었고, 마셨다.
- 그는 재판장(즉 통치자) 나하르를 끝내었다.
- 바알이 얄에게 승리하자마자 여러 신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 얄은 정녕 죽었고, 바알이 다스리신다.

20) Ibid., 48-50.

21) Ibid., 118-125.

3. 중국과 한국의 용 이미지

3.1. 중국의 용 이미지

앞장에서 구약성경에 나타난 용에 대한 이미지를 고대근동 신화와 더불어 살펴보았다면, 제3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나타나는 용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이미지가 제4장 히브리어 탄닌의 성경 번역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龍的傳人’ 즉 ‘용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 신화, 문화, 문학, 예술, 종교 등의 여러 영역에 걸쳐 다양한 용 문화를 형성했다.²²⁾

중국의 용은 다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그 중 신화적 관점, 자연 생물의 관점, 왕권 확립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신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먼저 복희와 여와에 대한 전설이 있다. 복희와 여와에 대한 설은 책마다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 복희는 여동생인 여와와 혼인해 중화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전설이다. 그들의 몸은 사람의 머리에 ‘뱀의 몸’ 또는 ‘용의 몸’을 하고 있다.²³⁾

원시 사회 이후 하나라와 상나라는 중국 역사에 출현한 최초의 왕조 국가이다. 하나라는 농공업의 발전을 이룩했는데 대우(大禹)의 치수 성공과 수리 시설은 하나라의 농업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대우의 치수와 관련된 전설은 바로 용문을 뚫는 이야기이다.²⁴⁾

중국의 용은 농업과 관련하여 물과 관련이 깊다.²⁵⁾ 용이 수신적(水神的)

22) 홍윤희, “중화민족이 용의 후예가 되기까지”, 『종교문화비평』 21 (2012), 132.

23) 양산천, 정자룡, 『중국을 말한다』, 김봉술, 남홍화 역 (서울: 신원문화사, 2008), 34-37.

24) Ibid., 144. 용문의 강변은 절벽인데 중간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 상류의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걱정거리였다. 우는 백성을 이끌어 절벽을 깨서 통로를 넓히고, 물이 순조롭게 흐를 수 있게 했다. 용문이 뚫리자 물 흐름이 맑고 느려져 많은 물고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매년 3월이면 수천 마리의 잉어가 올라오는데, 이 잉어들은 용문을 뛰어넘으면 용으로 변하고, 뛰어넘지 못하면 물고기로 살았다고 전해진다.

25) 중국인들은 용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천룡(天龍)’으로 하늘의 재생력을 대표하고, 둘째는 ‘신룡(神龍)’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며, 셋째는 ‘지룡(地龍)’으로 지상의 샘물과 수원을 장악하며, 넷째는 ‘호장룡(護藏龍)’으로 보물을 지키며, 이 밖에 사해 용왕이 있어서 지구를 둘러싼 네 바다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또한 구름 위로 올라가 안개를 다스리고, 비바람을 다스리며, 나라와 땅을 지킨다고도 믿었다.

인 이미지로 사용되어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호신의 개념으로 나타난다. 용이 물과 관련이 있는 이미지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탄닌의 이미지와 비슷하지만 그 특징과 개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두 번째로 용의 자연 생물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아익(爾雅翼)』²⁶⁾에서 나온 문장처럼 여러 동물이 합쳐진 하나의 큰 생물이라고 볼 수 있다. 민간에서는 뱀, 물고기, 도롱뇽, 도마뱀, 악어 등의 동물을 용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용의 상징으로 여겨 제사나 숭배를 했다.²⁷⁾

용의 기본 형태나 성향은 뱀과 비슷하여, 중국의 고대 사람들은 뱀과 용을 상관지어 수신(水神)으로 인식하였다. 『좌전(左傳)』의 “양공이십일년(襄公二十一年)”에 보면 “깊은 산에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용과 뱀이 산다”는 문장이 있으며, 또 “장공십사년(庄公十四年)”과 “소공이십구년(昭公二十九年)”에 보면 “뱀은 북방의 수중 생물이며 용 또한 수중 생물이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²⁸⁾ 여기서는 고대 사람들이 용과 뱀이 물에 사는 생물이라고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고기 또한 용과 관련된 수신(水神)으로 인식하였는데, 우가 수행원과 함께 순시를 돌 때 노란색의 큰 물고기가 배 뒤를 따라자 황룡이 와서 배를 뒤집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 하나라 후기 때 공갑이 용을 길렀다는 이야기가 그 예이다. 『좌전(左傳)』에 보면 공갑은 ‘환룡씨(豢龍氏)’와 ‘어룡씨(御龍氏)’라는 용을 기르는 전문 관직을 주었다. 그들이 기른 용은 네 마리의 큰 물고기였고, 그 용은 하나님이 공갑에게 하사한 것이라 하여 자기의 통치를 공고히 하려 했다.²⁹⁾

마지막으로 왕권 확립의 관점에서 보면 후대에 이르러는 왕권의 상징으로 용의 이미지를 이용하게 된다. 『사기(史記)』의 “고조본기(高祖本紀)”에 따르면 한나라의 고조는 그의 어머니 유온이 용과 결합하여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³⁰⁾ 한나라 이후 왕권과 용의 밀접성은 더욱 커졌고, 송대에 이르러 용의 모습이 더욱 구체화된다.

26) 송대 나원(羅願)의 『이아익(爾雅翼)』 “석룡(釋龍)”에 나온 문장은 지금의 알려진 용의 모습과 비슷하며 이는 용을 그리는 방식인 ‘삼정구사(三停九似)’에 따른 것이다. 본문: 龍角似鹿, 頭似駝, 眼似鬼, 項似蛇, 腹似蜃, 鱗似鯉, 爪似鷹, 掌似虎, 耳似牛. (용의 뿔은 사슴, 머리는 낙타, 눈은 토끼, 목은 뱀, 배는 대합[조개], 비늘은 잉어, 발톱은 매, 발바닥은 호랑이, 귀는 소와 닮았다.)

27) 向栢松, “中國龍的形成與水神崇拜”, 『長江大學學報』 4 (2007), 8.

28) Ibid., 9.

29) Ibid., 174-175; 홍윤희, “중화민족이 용의 후예가 되기까지”, 135-136.

30) Ibid., 139. 劉媪嘗息大澤之陂, 夢與神遇. 是時雷電晦冥, 太公往視, 則見蛟龍於其上, 已而有身, 遂產高祖. 『사기(史記)』, 고조본기(高祖本紀).

원, 명, 청나라에 이르러서는 왕에게 ‘진용천자(眞龍天子)’라는 호칭을 씌므로 진정 용으로부터 나온 왕임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원나라 이후 황제를 상징하는 용은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五爪龍)의 모습을 띠고 있으며, 관원이나 민간인이 용 문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고, 오로지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황제의 의복에 오조쌍각전신룡(五爪雙角纏身龍)의 문양을 넣음으로 왕만 용 문양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왕권을 상징하였다.

또한 언어적으로도 왕의 얼굴은 ‘용안(龍顏)’, 왕의 몸은 ‘용체(龍體)’, 왕의 옷은 ‘용포(龍袍)’ 혹은 ‘용곤(龍袞)’ 등 왕의 신체와 모습, 생활 용어 등을 용과 관련지어 사용하였다.³¹⁾

3.2. 한국의 용 이미지

한국에서 시작된 용 이미지는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용과 관련된 문헌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용 이미지는 주로 불교적인 성격과 왕권을 상징하는 존재로 쓰이는데, 먼저 문헌적 관점으로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신라, 고구려, 백제 중에서 용과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타난 나라는 신라이다. 또 아래 기사를 통해 주로 용이 출현하는 장소는 우물이며 비와 바람, 태풍과 같은 날씨와도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의 용 역시 물과 관련된 수신적(水神的)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성향은 결국 농업과 관련이 있으며, 또 중국의 용에서도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혁거세 60년. “秋 9월, 용 두 마리가 金城의 우물 속에서 나타나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고 성 남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삼국사기』 1 신라본기 1 유리왕 33년. “夏 4월, 용이 금성 우물에 나타나더니 소나기가 몰려왔다.”³²⁾

백제의 경우를 보면 신라, 고구려와는 다르게 흑룡이 나타나며, 출현 장소는 주로 우물이 아닌 강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백제에서 나타난 흑룡은 가뭄이나, 비유왕과 곤지의 죽음, ‘玄雲如龍’ 즉, ‘검은 구름이 용과 같다’는

31) 何星亮, “中國龍文化的特徵”, 『思想戰線』 1 (1999), 79.

32) 황민정, “한국 고대사회의 용 신앙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10.

의미로 백제의 멸망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삼국사기』 24 백제본기 2 비류왕 13년. “夏 4월, 王都의 우물물이 넘치더니, 흑룡이 그 속에서 나타났다. (가뭄)

『삼국사기』 25 백제본기 3 비유왕 29년. “秋 9월, 흑룡이 한강에 나타났는데 잠깐 운무가 끼어 캄캄하더니 날아가 버렸다. 왕이 돌아갔다.”

『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문주왕 3년. “(1년에 응진천도) 夏 5월, 흑룡이 응진에 나타났다. 내신 좌평 곤지(王弟)가 죽었다.”

『삼국사기』 28 백제본기 6 의자왕 20년. “春 3월, 폭풍 폭우가 쏟아지며 절탐에 벼락이 떨어지고, 검은 구름이 용과 같이 공중에서 동서로 갈려 싸웠다.”³³⁾

이러한 백제의 흑룡의 이미지는 신라의 날씨를 주관하고 농업과 관련된 수신적(水神的) 이미지와는 다른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의 문헌과도 관계가 있다.³⁴⁾

『漢書』에서는 ‘諸侯가 잡히는 화’로, 『晉書』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도모하는 암시’ 등으로 흑룡을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용의 모습은 왕의 비정상적인 죽음과 더불어 정권의 교체 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중국의 흑룡의 모습과 백제의 흑룡의 모습은 대체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두 나라 사이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⁵⁾

고구려의 용의 모습은 신라, 백제보다 적게 출현했으며, 주로 지명에 일부 포함된 표현으로 용이 나타나고 있다.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동명왕 3년. “春 3월, 황룡이 골령에 나타남.” (4달 후 상서로운 구름이 골령에 나타남.)

『삼국사기』 13 고구려본기 1 동명왕 19년. “秋 9월, 왕이 40세에 돌아가셨다. 동명성왕의 무덤은 용산에 모셔졌다.”

『삼국사기』 19 고구려본기 7 문자명왕 15년. “秋 8월, 왕이 용산의 양지에서 수렵을 하였고, 5일 후에 돌아오셨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였지만, 고구려의 용은 중국의 수신적(水神的)인 용의 이미지보다는 왕의 상징적인 존

33) Ibid., 11.

34) 『漢書』 “27권 오행지(五行志)”와 『晉書』 “29권 지(志) 19 오행하(五行下)”에 보면 흑룡이 나타난다.

35) 조법중, “한국 고대사회의 용 관련 문화”, 『史學研究』 65 (2002), 12.

재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광개토왕릉비문에 나타난 주몽의 승천을 돕는 존재로 용이 나타난 상황과 연결된다. 주몽의 무덤이 있는 용산과 고구려의 황룡국 등의 표현은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가 강하다.³⁶⁾

고구려는 농경 사회보다는 주로 수렵, 기마와 관련이 깊고 고구려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토착적 수신인 ‘하백(河伯)’과 관련하여 용이 수신적(水神的)인 이미지로서는 약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용 이미지를 언어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훈몽자회』와 『아언각비』를 들 수 있다. 『훈몽자회』에서 용은 순한글인 ‘미르’로, 『아언각비』에서는 ‘미리’라고 혼독하고 있다. 미르와 미리에 대한 뜻을 보면 물과 관련된 수신적(水神的)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용의 이미지는 수신적(水神的)인 이미지로 농업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씨와 물을 주관하고, 또 왕권을 상징하는 굳건한 권위의 이미지가 있는 반면,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용의 이미지는 악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습과 또 혼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바벨론 창조신화의 티아맛 이미지와 우가릿 창조신화에 등장하는 혼돈의 바다 짐승 로탄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리워야단과 라합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³⁷⁾

4. 한·중 성경에서의 탄닌의 번역과 대조 연구

구약성경에서 용이 나오는 본문을 살펴보면, 셈족의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 암시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용이 원래 신화적인 바다 짐승임을 나타낸다. 또 우가릿 문헌에서 바다의 신인 얌(Yam)은 용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용이 신화적인 차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은 욥기 7:12에 잘 나타나 있다.

욥기 7:12

『개역』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개역개정』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36) Ibid., 13.

37) 김정우, “구약성경에 나타난 리워야단 이미지(1)”, 『신학지남』 59:1 (1992), 7.

『표준』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공동』 내가 바다입니까? 바다의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파수꾼을 세워 이 몸을 지키십니까?

『개역』을 문맥적으로 보면 용은 바다와 함께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서 바다는 얇으로 용과 얇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하지만 히브리어 탄닌의 역어로 『개역』에서는 ‘용’으로, 『개역개정』에서는 ‘바다 괴물’, 『표준』에서는 ‘깊은 곳에 사는 괴물’, 『공동』에서는 ‘바다의 괴물’ 등 모두 다른 어휘로 번역되었다.

김정우는 “구약성경에서 신화적 짐승들은 리워야단, 라합, 용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성경에서도 이러한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신화적 짐승은 구약성경에서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영상’으로 사용되므로, 번역의 통일성과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번역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⁹⁾

본고에서는 한·중 성경에서의 히브리어 탄닌의 번역과 BHS, KJV와 더불어 탄닌 번역 어휘를 중심으로 대조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구약성경에서 탄닌이 각 성경 역본들 가운데 어떤 어휘로 번역이 되었는지와 각각의 성경 역본들 간에 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바이블렉스 7.0”에서 탄닌의 스트룡 코드는 8577로 뱀, 용, 바다 괴물, 고래, 자칼(jackal), 악어 등 여섯 가지의 뜻이 있다. 구약성경을 문맥적으로 볼 때 앞 장에서 밝힌 탄닌과 용의 이미지 및 번역과 탄닌과 자칼(들개)의 번역 관계는 서로 다른 용어이다. 하지만 본장에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각 번역 관계에 대해 전반적인 대조 연구를 목적으로 하여 자칼 용어의 번역 또한 포함하기로 한다.

탄닌이 들어간 구절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총 27회 나타나며, 먼저 BHS, KJV, 『개역개정』, 『화합본』으로 대조한 내용은 아래 “<표 1> 구약성경 탄닌 대조표”와 같다. 구약성경의 원래 언어를 유지하기 위해 『화합본』의 경우,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간체자로 제한하기로 한다. 또한, 히브리어 어법 형태의 경우, “바이블렉스”와 “디럭스바이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원전의 본문을 보여주며, 각 구절을 어법 형태로 원전 분해해 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38) 김정우, “구약성경에 나타난 리워야단 이미지(Ⅲ)”, 『신학지남』 59:4 (1992), 115-122.

39)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워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 (1999), 7.

<표 1> 구약성경 탄닌 대조표

번호	성경구절	BHS	히브리어 어법 형태	KJV	『개역개정』	『화합본』
1	창 1:21	תַּנִּינִם	남성 복수	whales	바다 짐승들	鱼
2	출 7:9	תַּנִּין	남성 단수	serpent	뱀	蛇
3	출 7:10	תַּנִּין	남성 단수	serpent	뱀	蛇
4	출 7:12	תַּנִּינִם	남성 복수	serpents	뱀	蛇
5	신 32:33	תַּנִּינִם	남성 복수	dragons	뱀	大蛇
6	욥 7:12	תַּנִּין	남성 단수	whale	바다 괴물	大鱼
7	욥 30:29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이리	野狗
8	시 44:19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9	시 74:13	תַּנִּי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용들	大鱼
10	시 91:13	תַּנִּין	남성 단수	dragon	뱀	大蛇
11	시 148:7	תַּנִּי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용들	大鱼
12	사 13:22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들개	野狗
13	사 27:1	תַּנִּין	남성 단수	dragon	용	大鱼
14	사 34:13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15	사 35:7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16	사 43:20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17	사 51:9	תַּנִּין	남성 단수	dragon	용	大鱼
18	렘 9:11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19	렘 10:22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20	렘 14:6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21	렘 49:33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큰 뱀	野狗
22	렘 51:34	תַּנִּין	남성 단수	dragon	큰 뱀	大鱼
23	렘 51:37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승냥이	野狗
24	애 4:3	תַּנִּיִּם	남성 복수	sea monsters	들개들	野狗
25	겔 29:3	תַּנִּיִּם	남성 단수	dragon	악어	(大)鱼
26	겔 32:2	תַּנִּיִּם	남성 단수	whale	큰 악어	大鱼
27	미 1:8	תַּנִּיִּם	남성 복수	dragons	들개	野狗

먼저 <표 1>은 성경의 순서에 따라 27번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탄닌 용어 앞에 정관사나 접속사의 어법 형태가 붙는데, 정확한 어휘 대조 연구를 위해 탄닌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법 구조는 모두 빼기로 한다. 또한, 19번의 예레미야 10:22를 보면 복수 형태 뒤에 소프파속이 붙는데, 이것은 악센트로 단어 상의 의미 변화는 없다.

<표 1>의 BHS에서 탄닌의 단어 구조와 그 형태를 보면 계속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단어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그 안에 또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즉, 첫 글자인 ‘탄(תַּנִּין)’에서 연강점의 유무로 두 가지의 언어 구조로 나누었고, 복수 형태에서 받음 강세의 증가에 따라 또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었다. 알기 쉽게 표를 나누면 아래 “<표 2> 탄닌의 구조와 형태 분류”와 같다.

<표 2> 탄닌의 구조와 형태 분류

형태 번호	구조 1	형태 번호	구조 2
1	תַּנִּין	1-1	תַּנִּין
2	תַּנִּים	2-1	תַּנִּים
3	תַּנִּיָּם	3-1	תַּנִּיָּם
4	תַּנִּיָּם	4-1	תַּנִּיָּם

<표 2>에서 분류된 탄닌의 구조와 형태가 각 성경 역본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래 “<표 3> 영어, 중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의 번역 대조표”, “<표 4> 한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의 번역 대조표”와 “<표 5> 탄닌 구조별 역어 대조표”를 통해 자세히 나타내고자 한다.

위 <표 1>을 통해 히브리어 탄닌의 역어로 각 성경 역본마다 쓰인 단어가 같은 구절이 있고, 아닌 구절이 있는데, 이는 원어가 나타내는 의미상의 다름도 있지만 또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언어가 다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KJV에서는 dragon의 역어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 것에 비해 『화합본』에서는 단 한 번도 용에 대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KJV는 히브리어 어법 형태 부분과 비교하여 볼 때, 정확하게 단수와 복수에 대한 번역을 했지만, 그 외 다른 성경 역본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 성경에 있어서 탄닌이 어떤 용어로 번역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먼저 중국 성경으로는 『대표본』, 『브리지만-컬벗슨역』,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화합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 3> 영어, 중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의 번역 대조표”와 같다.

<표 3> 영어, 중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의 번역 대조표

번호	BHS	성경구절	KJV	『대표본』	『브리지만-컬벳슨역』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	『화합본』		
1	תנין	욥 7:12	whale	鱷魚	鱷	鱷魚	大鱼		
		사 27:1	dragon	鱷魚	龍	龍	大鱼		
		사 51:9	dragon	鱷魚	龍	龍	大鱼		
		렘 51:34	dragon	蛇	龍	龍	大鱼		
2	תנין	출 7:9	serpent	蛇	蛇	蛇	蛇		
		출 7:10	serpent	蛇	蛇	蛇	蛇		
		시 91:13	dragon	巨蛇	蛇	毒龍	大蛇		
3	תנינים	시 44:19	dragons	野犬	龍	龍蛇	野狗		
		사 43:20	dragons	野犬	豺狼	野犬	野狗		
		렘 9:11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렘 10:22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野狗		
		렘 14:6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野狗		
		렘 49:33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렘 51:37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애 4:3	sea monsters	野犬	野犬	豺狼 (或野犬)	野狗		
		겔 29:3	dragon	鱷	龍	龍	魚		
		겔 32:2	whale	鱷	龍	龍(或鱷)	大鱼		
		미 1:8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4	תנינים	욥 30:29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사 13:22	dragons	野犬	野犬	野犬	野狗
사 34:13	dragons			蝮蛇	豺狼	豺狼 (或野犬)	野狗		
사 35:7	dragons			野犬	豺狼	豺狼	野狗		
5	תנינים	창 1:21	whales	魚	魚	魚	魚		
		신 32:33	dragons	蛇	龍	龍	大蛇		
6	תנינים	출 7:12	serpents	蛇	蛇	蛇			
7	תנינים	시 148:7	dragons	巨魚	龍	蛟龍	大鱼		
8	תנינים	시 74:13	dragons	巨魚	龍	龍	大鱼		

<표 3>은 위의 <표 2>에서 나온 탄닌 형태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여 KJV와 『대표본』, 『브리지만-컬벳슨역』, 『쉐레셰브스키 쉬운 문리역』, 『화합본』

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먼저 중국의 각 성경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대표본』은 영국인 선교사들이 펴낸 성경으로 특히 중국 고전을 많이 인용하여 번역하였는데, 이는 성경과 중국 고전이 다른 책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때로 원문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쓰기”를 이용한 『대표본』의 번역 특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한국 성경 책의 이름과 고유명사가 『대표본』에서 많이 옮겨졌으며, 한국 성경 번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⁴⁰⁾

『대표본』과 동시대에 나온 『브리지만-컬벳슨역』은 직역으로 유명한 역본인데, 비교해 보면 번역 방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먼저 『대표본』은 “중국어의 특징을 살린” 번역으로 알맞고 정확한 표준어를 사용하였다. 이에 비해 『브리지만-컬벳슨역』은 “원문을 문자적으로 충실하게 번역한” 직역 성경이다.⁴¹⁾

『브리지만-컬벳슨역』은 『대표본』의 번역 특징에 불만을 가져 영어 성경 KJV를 근간으로 삼고 『대표본』의 표현이나 용어를 많이 채택하여 옮겼다. 이 성경은 한국 최초의 완역 성경 『구역』(1911)의 용어와 표현에 큰 영향을 미쳤고, 특이한 점은 두 번역자가 죽은 뒤에 나왔다는 점이다.⁴²⁾ 위의 <표 3>에서 중국 성경뿐만 아니라 KJV까지 포함시킨 이유는 이 성경이 KJV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성경 구절을 통한 대조 연구는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쉐레쉐브스키 관화역』(1875)을 근간으로 삼아 ‘쉬운 문리체’로 고쳐 옮긴 성경으로, 한국 성경 『개일-이원모역』(1925)과 『개역』(1938)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쉐레쉐브스키 관화역』은 『화합본』(1919)의 모체가 된 성경이다.⁴³⁾

<표 3>의 탄닌 번역 대조표를 통해 구약성경 구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크게 『대표본』, 『브리지만-컬벳슨역』,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을 기준으로 대조하겠다.

첫째, 『대표본』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중국어 성경과 비교한다.

40)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성경원문연구』 27 (2010), 32; “한문성경 『대표본』(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성경원문연구』 30 (2012), 38.

41) 요우빈(游斌),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번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참조.

42) 이환진,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1864)의 번역 특징”, 『신학과 세계』 73 (2012), 7, 43.

43)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32; “쉐레쉐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성경원문연구』 28 (2011), 36-37.

(1) 1번의 욥기 7:12를 보면 『브리지만-컬벳슨역』,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대표본』에서 번역된 ‘鱷魚(악어)’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고, 『화합본』에서는 ‘大魚(큰 물고기)’라고 번역하였다. 원문에서의 문맥과 의미를 볼 때, 악어의 번역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2) 2번에서 시편 91:13을 보면 『대표본』에서 ‘巨蛇(큰 뱀)’ 용어로 번역하였는데, 『화합본』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大蛇(큰 뱀)’로 번역하였다.

(3) 3번의 탄닌에 대한 번역 용어는 주로 들개를 사용하여 번역되었는데, 『대표본』에서는 ‘野犬(들개)’ 용어를 사용하였고, 『화합본』에서도 같은 단어인 ‘野狗(들개)’로 번역하였다. 犬과 狗는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주로 狗를 사용한다. 『브리지만-컬벳슨역』에서는 ‘豺狼(시랑)’으로,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는 ‘豺狼 또는 野犬’으로 번역하였다.

(4) 3번에서 에스겔 32:2를 보면 『대표본』에서는 ‘鱷(악어)’, 『브리지만-컬벳슨역』에서는 ‘龍(용)’,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는 ‘龍 또는 鱷’ 『화합본』에서는 ‘大魚(큰 물고기)’라고 번역하였으며, 『대표본』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만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5) 7번과 8번의 시편 148:7; 74:13에서 『대표본』은 ‘巨魚(큰 물고기)’를 사용하였고, 『화합본』에서도 마찬가지로 ‘大魚(큰 물고기)’라고 번역하였다.

둘째, 『브리지만-컬벳슨역』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중국어 성경과 비교한다. KJV의 영향을 받아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과 같이 세 성경에서 모두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경우로 3번의 시편 44:19와 에스겔 29:3, 5번의 신명기 32:33이 그 예이다.

3번은 주로 탄닌이 들개로 번역된 부분인데 시편 44:19에서 KJV는 ‘dragons(용)’로 번역하였고, 『브리지만-컬벳슨역』은 ‘龍(용)’으로,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龍蛇(용뱀)’으로 번역하였다.

5번의 신명기 32:33에서도 3번과 마찬가지로 KJV는 ‘dragons(용)’, 『브리지만-컬벳슨역』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도 ‘龍(용)’으로 번역하였다.

셋째,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중국어 성경과 비교한다.

(1) 2번의 시편 91:13을 보면 KJV는 탄닌을 ‘dragon(용)’으로 번역하였고,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는 ‘毒龍(독룡)’으로 번역하였다. 특히, 다른 성경과 달리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는 용의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 예로 위의 독룡, 시편 44:19(龍蛇: 용뱀), 에스겔

29:3(龍: 용), 시 148:7(蛟龍: 교룡)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2) 3번의 에스겔 32:2를 보면 『대표본』은 ‘鱷(악어)’, 『브리지만-컬벗슨역』은 ‘龍(용)’으로 번역하였는데,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에서는 ‘龍 또는 악어’로 번역하여, 앞의 두 성경에서 나타난 용어를 모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표 4>를 통해 한국어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 번역 용어를 비교하겠다. 한국어 성경은 『개역』, 『개역개정』, 『표준』, 『공동』이다.

<표 4> 한국어 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번역 대조표

번호	BHS	성경구절	『개역』	『개역개정』	『표준』	『공동』
1	תנין	욥 7:12	용	바다 괴물	깊은 곳에 사는 괴물	바다의 괴물
		사 27:1	용	용	바다의 악어	바다 괴물
		사 51:9	용	용	용	용
		렘 51:34	용	큰 뱀	바다의 괴물	바다의 용
2	תנין	출 7:9	뱀	뱀	뱀	뱀
		출 7:10	뱀	뱀	뱀	뱀
		시 91:13	뱀	뱀	살모사	구리뱀
3	תנינים	시 44:19	시랑	승냥이	승냥이	여우
		사 43:20	시랑	승냥이	이리	승냥이
		렘 9:11	시랑	승냥이	여우들	여우
		렘 10:22	시랑	승냥이	여우 떼	여우
		렘 14:6	시랑	승냥이	여우	여우
		렘 49:33	시랑	큰 뱀	이리 떼	여우들
		렘 51:37	시랑	승냥이	여우 떼	여우
		애 4:3	들개	들개들	들개들	여우
		겔 29:3	악어	악어	악어	악어
		겔 32:2	큰 악어	큰 악어	악어	악어
미 1:8	들개	들개	여우	여우		
4	תנינים	욥 30:29	이리	이리	이리	승냥이
		사 13:22	들개	들개	늑대	승냥이
		사 34:13	시랑	승냥이	승냥이 떼	승냥이
		사 35:7	시랑	승냥이	승냥이 떼	승냥이
5	תנינים	창 1:21	물고기	바다 짐승들	바다 짐승들	물고기
		신 32:33	뱀	뱀	뱀	바닷뱀
6	תנינים	출 7:12	뱀	뱀	뱀	뱀
7	תנינים	시 148:7	용들	용들	바다의 괴물들	큰 물고기
8	תנינים	시 74:13	용들	용들	타닌들	괴물들

초기 한국어 성서 번역은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가지 중국어 문리역 성경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는 『대표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브리지만-컬벳슨역』이다.⁴⁴⁾

위의 두 중국어 성경과 <표 3>의 대조표와 더불어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을 비교하여 탄닌 번역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대표본』을 기준으로 두고 한·중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 번역을 비교한다.

(1) 1번의 예레미야 51:34에서 보면 『대표본』은 ‘蛇(뱀)’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도 이와 마찬가지로 ‘큰 뱀’으로 번역하였다. 『개역』에서는 ‘용’, 『표준』에서는 ‘바다의 괴물’, 『공동』에서는 ‘바다의 용’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의 ‘큰 뱀’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⁴⁵⁾

(2) 3번의 에스겔 29:3에서 보면 『대표본』은 ‘鱷(악어)’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개역』, 『개역개정』, 『공동』, 『표준』에서 ‘악어’로, 『대표본』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3) 5번의 신명기 32:33에서 보면 『대표본』은 ‘蛇(뱀)’로 번역하였고, 『개역』, 『개역개정』, 『표준』에서는 ‘뱀’으로, 『공동』에서는 ‘바닷뱀’으로 『대표본』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그 외, 『화합본』에서는 ‘大蛇(큰 뱀)’로 번역하였고, 나머지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은 모두 ‘용’으로 번역하였다.

둘째, 『브리지만-컬벳슨역』을 기준으로 두고 한·중 성경에서 나타난 탄닌 번역을 비교한다.

(1) 『개역』에서 사용된 ‘시랑’ 용어의 번역을 보면 주로 3번과 4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중국어 성경 『브리지만-컬벳슨역』에서 번역된 ‘豺狼(시랑)’ 용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⁴⁶⁾ 그 외에, 『브리지만-컬벳슨역』에서 ‘野犬(들개)’ 용어로 번역된 부분은 3번의 예레미야애가 4:3과 4번의 이사야 13:22에서 총 2회 출현했다. 그와 관련하여 한국어 성경 『개역』, 『개역개정』을 보면 중국어 성경과 마찬가지로 ‘들개’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다.

(2) 7번의 시편 148:7과 8번의 시편 74:13을 보면 KJV와 『브리지만-컬벳슨역』,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개역』, 『개역개정』에서 모두 ‘용’으로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성경이 KJV의 영향을 받았

44)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81.

45)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워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16.

46) 사 34:13; 35:7; 43:20; 렘 9:11; 10:22; 14:6; 49:33; 51:37.

고, 한국어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앞의 내용을 통해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 있어서 탄닌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각 역본들 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외에 위의 <표 3>, <표 4>의 비교를 통해 일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 탄닌의 번역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부분을 살피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들개’와 ‘뱀’에 대한 번역 부분이다.

1) 들개

3번의 예레미야 49:33에서 탄닌의 번역 용어를 보면 『대표본』은 ‘野犬’, 『브리지만-컬벳슨역』은 ‘豺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豺狼 혹은 野犬’, 『화합본』은 ‘野狗’, 『개역』은 ‘시랑’, 『개역개정』은 ‘큰 뱀’, 『표준』은 ‘이리 떼’, 『공동』은 ‘여우들’이다. 『개역개정』의 뱀을 제외하고 모두 ‘들개’와 관련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큰 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 다른 구절은 4번의 이사야 34:13이다. 여기에서 사용된 탄닌의 번역 용어를 보면 『대표본』은 ‘蝮蛇(복사)’, 『브리지만-컬벳슨역』은 ‘豺狼’,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豺狼 혹은 野犬’, 『화합본』은 ‘野狗’, 『개역』은 ‘시랑’, 『개역개정』과 『공동』은 ‘승냥이’, 『표준』은 ‘승냥이 떼’이다. 『대표본』의 ‘복사’를 제외하고 모두 ‘들개’와 관련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표본』에서 사용된 ‘복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2) 뱀

여기에서 말하는 ‘뱀’ 용어는 2번의 시편 91:13으로만 제한한다. 시편 91:13에서 사용된 탄닌의 번역을 보면 『대표본』은 ‘巨蛇(큰 뱀)’, 『브리지만-컬벳슨역』은 ‘蛇’,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은 ‘毒龍(독룡)’, 『화합본』은 ‘大蛇’, 『개역』과 『개역개정』은 ‘뱀’, 『표준』은 ‘살모사’, 『공동』은 ‘구리뱀’이다. 시편 91:13은 평행법을 이용하여 앞 구절의 ‘독사’와 ‘뱀’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문맥적 의미를 둔다면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의 ‘毒龍(독룡)’과 『표준』은 ‘살모사’ 용어에 대한 사용이 다른 성경 구절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에서 탄닌의 역어로 사용된 ‘구리뱀’은 다소 문제가 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구리뱀의 이미지는 구약의 민수기 21:9와 신약의 요한복음 3:13-14를 바탕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는 탄닌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것이며, 다른 성경 역본의 번역을 통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탄닌의 번역에 대한 대조를 마지막으로 “<표 5> 탄닌 구조별 역어 대조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탄닌 구조별 역어 대조표

형태 번호	구조 1	역어	수	형태 번호	구조 2	역어	수
1	תנין	용	18	1-1	תנין	뱀	25
		바다 괴물	5				
		악어	5				
		큰 물고기	4				
		뱀	2			용	2
		고래	1				
		괴물	1				
2	תנינים	들개	68	2-1	תנינים	들개	16
		용	15				
		악어	10			용	4
		큰 물고기	2				
		바다 괴물	1				
		뱀	1			뱀	1
		고래	1				
3	תנינים	큰 물고기	6	3-1	תנינים	뱀	9
		뱀	6				
		용	3				
		바다 짐승	2				
		고래	1				
4	תנינים	용	5	4-1	תנינים	용	5
		큰 물고기	3			큰 물고기	2
		바다 괴물	1			괴물	1
						타닌	1

<표 5>는 편의상 한국어로 번역을 하여 각 성경 역어들을 큰 범주로 묶어 정리하였다.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히브리어 원어를 비교하여 볼 때 구조 1이나 구조 2에서 각각 탄닌의 번역 용어로 가장 많이 쓰인 어휘가 일정하다는 점이다. 1번에서는 ‘용’, 1-1에서는 ‘뱀’, 2번과 2-1번에서는 ‘들개’, 3번은 ‘큰 물고기와 뱀’, 3-1번은 ‘뱀’, 4번에서는 다시 ‘용’이 많이 나타났다.

<표 5>의 히브리어 탄닌의 구조와 형태로 분류하는 작업은 <표 3>, <표 4>의 각 성경 역본에서 나타난 용어들을 비교하였을 때, 성경의 번역 용어에 대해 훨씬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었다.

<표 5>에서 주의 깊게 볼 부분은 바로 탄닌의 번역 용어로 사용된 ‘들개’에 대한 각 성경의 번역 부분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표 5>의 2번의 ‘탄님(טַנִּין)’과 2-1번의 ‘탄님(טַנִּין)’인데, 각 성경 역본마다 대개 ‘들개’로 번역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탄(טַנִּין)”의 복수 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위의 <표 5>를 보면 히브리어 탄닌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녀 각 역본과 구절마다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 탄닌이 주로 번역된 용어들을 보면 ‘뱀’, ‘큰 물고기’, ‘용’, ‘바다 괴물’, ‘들개’ 등인데, 여기에는 고대근동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의 이미지인 용 이미지와 구약성경에 나타난 용 이미지의 문맥적 관계뿐만 아니라 현대의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에도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나오는 말

구약성경에 나온 용의 이미지는 신화적으로 바벨론과 우가릿의 창조신화에서 나타난 티아맛과 로탄을 들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과 바로와 같은 폭군의 상징으로 사용되며, 자연적 동물의 관점으로는 큰 물고기와 뱀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걸작으로도 사용된다.

중국의 용 이미지는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주로 물과 관련된 자연적 동물 이미지와 더불어 수신적(水神的)인 이미지, 왕권 확립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용의 이미지는 농경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였다는 부분이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으로 나타났다. 구약에서의 용 이미지와 한·중의 용 이미지는 모두 물과 관련된 것이 공통점이다. 하지만 차이점은 구약에서 말하는 용의 이미지는 ‘혼돈과 악의 이미지’이며, 바다 짐승, 뱀, 많은 머리를 가진 폭군 또한 동일한 이미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어 탄닌의 번역 용어를 BHS, KJV, 중국어 성경의 『대표본』, 『브리지만-컬벗슨역』,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화합본』, 한국어 성경의 『개역』, 『개역개정』, 『표준』, 『공동』의 다양한 성경 역본의 대조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히브리어 탄닌을 그 구조와 형

태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탄닌의 번역 용어들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대조하였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용의 이미지와 더불어 신화적인 접근과 성경 역본을 각 시대적으로 대조하는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 발전한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양의 용 이미지와 성경 번역 간의 관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Keywords)

번역 대본, 용의 이미지, 탄닌, 구약성경, 고대근동 창조신화.

basic texts, dragon image, Tannin, Old Testament, creation stories of the ancient Near Eastern world.

(투고 일자: 2016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16년 2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16년 3월 25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공동번역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성경전서 표준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文理 舊新約聖書(Wenli Bible, Delegates' Version)』, 上海: 聖書公會, 1933;
원출판년 1854.
- 『舊新約全書(Bridgman and Culbertson's Version, Classical Bible)』, 上海: 大美國聖經會, 1864.
- 『舊新約聖經(Bishop Schereschewsky's Version, Easy Wenli, Term Shangti)』,
上海: 美國聖經會, 1902.
- 『聖經 和合本』, 香港: 중국기독교협회, 2007.
-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7.
- The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Robert Carroll and Stephen Prickett,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org. ed. 1611.
- 김정우, “구약성경에 나타난 리위야단 이미지(I)”, 『신학지남』 59:1
(1992), 6-34.
- 김정우, “구약성경에 나타난 리위야단 이미지(III)”, 『신학지남』 59:4
(1992), 107-130.
- 김정우, 『구약성경에서 나타난 리위야단의 영상』,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4.
- 김정우, “구약성서에 나타난 신화적 짐승 리위야단, 라합, 용의 영상에 대한 번역적 고찰”, 『성경원문연구』 5 (1999), 7-18.
- 김정환, “한국·루마니아 구비문학에 나타난 용·뱀의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 18 (2007), 203-228.
- 민영진, “바빌로니아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의 번역과 주해”, 『신학과 세계』 7 (1981), 273-298.
- 민영진,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에 나타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의 영향”, 『성경원문연구』 19 (2006), 176-199.
- 양산천, 정자룡, 『중국을 말한다』, 김봉술, 남홍화 역, 서울: 신원문화사, 2008.
-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77-98.
- 이환진,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전쟁: 에누마 엘리쉬를 중심으로”,

- 「영상문화」 7 (2003), 22-37.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성경원문연구」 28 (2011), 35-57.
- 이환진, “한문성경 『대표본』 (代表本, 1854)의 번역 특징”, 「성경원문연구」 30 (2012), 25-44.
- 이환진, “한문성경 『브리지만-컬벗슨역』 (1864)의 번역 특징”, 「신학과 세계」 73 (2012), 7-45.
- 이환진, “<서평> *Translation That Openeth the Window: Reflections on the History and Legacy of the King James Version*”, 「성경원문연구」 29 (2011), 179-205.
- 조법종, “한국 고대사회의 용 관련 문화”, 「史學研究」 65 (2002), 3-20.
- 황민정, “한국 고대사회의 용 신앙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9.
- 홍윤희, “중화민족이 용의 후예가 되기까지”, 「종교문화비평」 21 (2012), 131-170.
- 何星亮, “中國龍文化的特徵”, 「思想戰線」 25 (1999), 76-82.
- 向栢松, “中國龍的形成與水神崇拜”, 「長江大學學報」 4 (2007), 8-13.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 of ‘Tannin (Dragon)’ in the Old Testament with
Reference to Its Translation in Korean
and Chinese Bibles**

Eun-jung Kim
(San Dong University)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explore how the word and meaning of ‘dragon’ has been translated in the Chinese and Korean Bibles. The Oriental perception of dragon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Western one. Whereas a dragon is associated with negative images in the West, the East associates it with positive ones.

In both of the Chinese and Korean contexts, a dragon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God of water’, or with water and weather, which also shows deep correlation with each country’s agricultural society. In the Old Testament, dragons are associated with the ocean, and its depiction of the ocean is associated with darkness, which differs from the Korean and Chinese Bible interpretations which depict a more positive image.

Bible translations are hugely influenced by each country’s culture and language. The study seeks to compare and contrast the antithetic images of dragon in the texts of Korean and Chinese Bible translations. This research paper reviews four versions of the Bible in English, Chinese, and Korean, and the original Hebrew Bible was used to enhanc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This research paper is about Tannin (Dragon) appearing in the Old Testament and its different trans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When I first came across dragons in the Old Testament, I started to research the background of the semantic creation of myths, and later connected it to Chinese and Korean cultures. This led me to countless examples of different translations in Korean and Chinese as well as other diachronic contrasts between these languages.